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8
2024. 10~11



전라남도
여수 금오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8
2024. 10~11



전라남도
여수 금오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섬 단어 사전

03 섬길

PHOTO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호남약도, 금오도 방풍나물, 섬 풍경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금오도 마을 이야기

09 돌산군수 서병수 시 : 금오도
나라의 부름을 아직도 기다린다 : 황장봉산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0 1월부터 12월까지,
금오도 바다와 땅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11 바다생물 인문학 : 도미(刀味)
책으로 만나는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1980년)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2 송호민 남면사무소 주무관

14 김성일 금오도 송고마을 이장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6 금오도 투어 가이드

20 금오도 여행 명소

22 [특집1] 금오도 비령길 탄생 이야기
-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24 [특집2] 2024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금오도 비령길 탐방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6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섬 단어사전



섬길

#생태탐방로

#금오도비령길

#백섬백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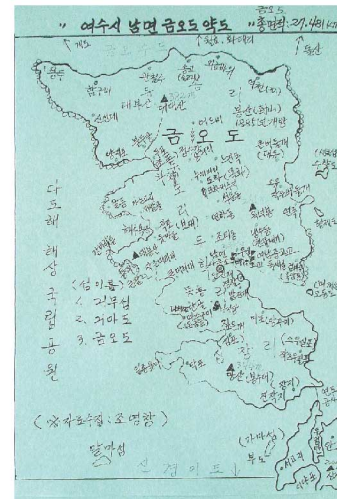
#섬&산100

길은 삶의 여적(旅迹)이다. 길 위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 된다. 삶의 공간을 낯선 방문자에게 기꺼이 내어 주는 일 또한 새로운 만남을 통해 여정(旅情)을 이어가는 시간이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기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연장이 길이다.

섬길도 섬사람들의 오래된 삶의 여적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섬을 떠난 이들로 인해 발길이 끊어지고 난 후 마을과 사람을 잇는 끈이 잠시 단절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도보여행은 여행객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길 위의 만남을 위해 배낭을 꾸리게 만들었다. 탐방로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을 체험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주민의 이익과 탐방객의 만족감을 높이려는 형태가 다수다. 다양한 이유로 인한 여행트렌드의 변화는 남쪽 바다 섬에도 밀려와 해안 비경에 감탄하고, 개미나는 음식에 만족하고, 섬사람의 미소에 감동했다.

길은 삶을 변화시켰다. 물때에 맞춰졌던 시계는 외지로부터 온 방문객에게로 돌려졌다. 바빠 돌아가는 일상에 낯선 사람들의 흔적은 반가움의 향기에서 못내 서운함의 냄새로 드러나려 한다. 아직은 괜찮다. 사람이 반가운 사람들이기에 아직은 괜찮다. 그 괜찮음이 길을 통해 이어진 인연에 대한 오랜 그리움이다.



▲ 여수 서시장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했던 금오도 출신 어르신이 직접 그린 금오도·안도 지명 지도

도움 주신 분

- 송호민 남면사무소 주무관
- 김성일 남면 송고마을 이장
-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참고문헌

- 정약전, 『자산어보(玆山魚譜)』, 1814
- 서유구, 『전어지(佃漁志)』, 1820
-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전라남도, 1910
- 전라남도,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
- 전라남도,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 1980
- 이근우 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3-1 전라남도, 2018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포털, 조선왕조실록 (<https://www.khs.go.kr/main.html>)
-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원, 「섬여행 스토리북」11 - 여수 금오도·안도, 2013.
- 주간기독교(<https://www.cnews.or.kr/>)



facebook
가고싶은 섬
자세히 보기

다시 섬사람의 여적이 물 사람들과 함께 남겨질 수 있도록
지금 다시 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때다.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여천군 남면 금오도

『호남약도(湖南略圖)』(1965년)



1965년 전라남도에서 제작한 『호남약도(湖南略圖)』에 소개된 금오도는 3려(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 전으로, 여천 군에 속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금오도를 중앙에 두되 왼쪽으로 연도, 아래쪽에 안도를 반영했다. 행정리 기준 마을 지명과 함께 학교, 산 등 지역 정보가 담겨있다. 이밖에 ‘수항도’, ‘가리산여’ 등 작은 섬과 바위 등도 보여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시절임에도 명확한 정보 수록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금오도 곳곳에 물고기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서 잘 나는 도미일 것으로 보인다.

근대 시기 금오도에 관한 기록은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3-1 : 전라남도 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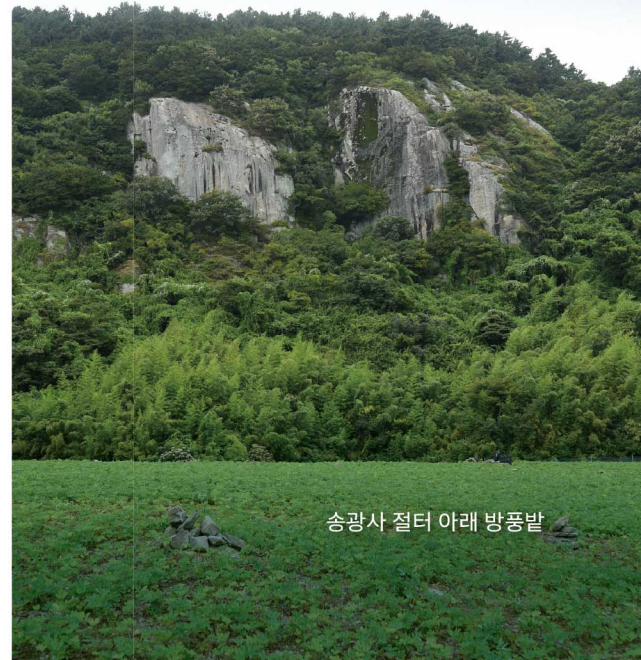
▲ 호남약도(湖南略圖)
여천군 남면 금오도

금오면(金鰲面)은 두남면(현 돌산읍)에서 남쪽에 떠 있는 여러 섬들로, 면에 소속된 섬 가운데 금오도가 가장 크다. 이곳은 남면으로도 불리는데, 군치(郡治)의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다. 금오면에는 11개의 도(島)와 8개의 서(嶼)가 각각 근접하여 집단을 이룬다. 면(面)에 속한 여러 섬에는 모두 마을이 있는데, 두 개 이상 있는 곳이 금오도와 연도, 안도 등 세 섬이다. 면 전체 호수(戶數)가 406호, 인구 1,282명이다. 이 섬은 본래 봉산(封山)으로 전라좌수영이 감독했다. 큰 나무가 섬 전체에 울창할 뿐만 아니라 푸르고 맑음이 실로 남해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곳이다. 고종 2년(1865년) 경복궁을 조영하려고 자주 벌채하여 한양으로 운송했다. 을유년에 이르러 간척을 허가하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왔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무리를 이뤘는데, 장지, 심포, 미포, 진동, 우실동, 학동, 직포, 여천동, 대류포 등 마을이 산재해 있다.

금오도는 난류의 길목에 있어 연해(連海)에 회유하는 물고기가 다소 보이지만, 어획하는 섬사람들이 많지 않다. 심포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호수가 30호, 인구가 94인이다. 주요 어획물은 갈치와 조기 등이지만 그 양이 많지 않다. 다만 일본인들에 의한 어업이 활발한 편인데 삼치 유망, 도미낚시, 상어낚시 등으로 이름났다. 1월부터 12월에 이르기 까지 연중 개황이 활발히 이뤄지는데 대상 어종은 도미와 봉장어, 삼치, 상어 외에 새조개, 우뚝가사리, 풀가사리 등이다.

몸에 드는 바람을 막다.

방 풍 나 물



송광사 절터 아래 방풍밭

돌산도에서 지척인 거리에 있는 금오도.

마을길 가로지르며 이곳저곳 밭을 둘러보니
키 작은 잡초가 무성하였다.

무엇에 쓰는 작물인지 알 길 없어 잇고 말았는데.
밭상 위에 무친 나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녕 몰랐다.

쌈싸레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났다.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란 게 이런건가?
풍(風)을 방지하고 해열 작용과 함께
관절염에도 효능이 뛰어난다니.

바람도 약이 되는 곳. 금오도.



전남섬발전지원센터 강민구



금오도 송고마을에서 바라본
여수 개도와 월호도



대두라도를 가로질러 나가는
예인선



금오도 함구미마을 선창에 담긴
하늘바다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금오도가 국유지로 관리하던 봉산(封山)이었을 때 포수들이 처음 도착한 포구라하여 '첫개', '초포'라고 불리는 두포마을



▲ 금오도민유지 해결기념비
금오도개척 100주년 기념비



▲ 비령길 탐방로 1코스가 시작되는
함구미마을



▲ 마을공동체의 평안을 기원하는
송고마을 당제

금오도 마을이야기

두포리는 금오도 서쪽에 자리잡은 두포, 모하, 직포 큰 마을과 가는고지, 조피등, 누에머리(늦은목) 등 작은마을이 있다.

두포마을 주민들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금오도가 국유지로 관리하던 봉산(封山)이었을 때 사냥을 위해 관청 소속 포수들이 처음 도착한 포구라하여 '첫개', '초포'라고 불렀다가 옥녀봉 전설에 의해 두포(斗浦)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선녀 4명이 금오도에 내려와 놀다가 3명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지만 한 선녀만이 인간과 인연을 맺어 올라가지 못하고 남게 되어 옥녀봉이라 부른다고 전해진다. 옥녀봉 나무를 베면 옥녀의 치마를 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고 전해져 예전에는 이 산에서는 나무를 베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당제의 원형이 보존, 계승되고 있는 마을이다. 매년 정월 초하룻날에 마을 동북쪽에 있는 당집에서 제를 지낸다. 칠월칠석에는 마을 회관 옆 소나무 숲 아래에서 마을잔치를 열었다. 전에는 '진세택'이라고 해서 자식을 얻은 집에서 막걸리를 내고 음식을 마련하여 흥겹게 놀았다고 한다.

직포마을은 동쪽 옥녀봉의 선녀인 옥녀가 모하, 두포마을에서 목화와 누에고치를 가져와 베를 짰다고 하여 베틀의 바디(보대)의 이름을 따서 '보대'라고 부르다가 직포(織浦)로 불린다. 비령길 생태탐방로 중 다양한 식생과 비경이 공존하는 3코스의 시작점이다. 포구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몽돌 바닷가에는 방풍(防風) 소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학리는 금오도의 중심지다. 안진개 내진과 발진개 외진이 합쳐진 내외진, 우실, 학동 등 3개 큰 마을과 안골, 검바위 흑암동, 찬물내기 냉수동, 작은머릿개와 못동 등 작은 마을이 있다. 1860년 안도에서 큰 불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던 사람들이 봉산으로 출입을 금지시켰던 이곳에 몰래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85년 민간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국유지에서 민유지로 바뀐 것을 기념 하기 위해 1918년에 세운 『금오도민유지 해결기념비』와 금오도 개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6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금오도개척 100주년 기념비』가 면사무소 옆에 나란히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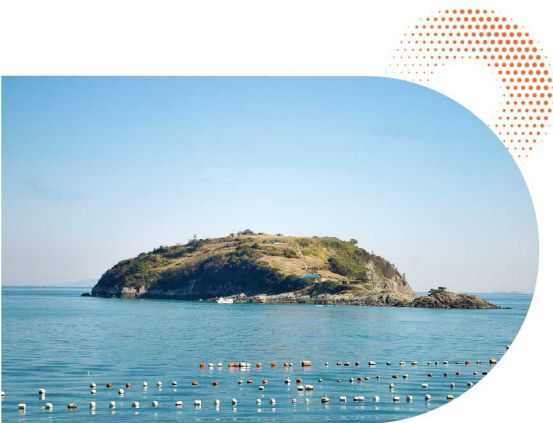
우실마을에는 성지순례로 주목받는 우학리교회와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관이 있다. 이기풍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은 분 중 한 분이다. 금오도에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거부운동을 주도했다. 제주도와 여수의 섬에 뿌리 내린 개신교는 이기풍 목사의 역할이 아주 컸다.

금오도 북동쪽에 터를 잡은 유송리는 함구미, 송고, 여천, 대유, 소유 마을이 있다.

함구미마을은 여수에서 개도를 경유해서 금오도로 들어오는 첫 포구이자 백야도에서도 배가 드나드는 관문이다. 매봉산 산줄기 끝부분이 용머리를 닮은 용두마을과 큰 포구 라는 의미의 함구미마을은 비령길 탐방로 1코스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용머리, 미역널방, 수달피벼랑, 송광사 절터 등 비령길 탐방의 백미로 불린다.

송고마을은 가늘고 길게 튀어나온 곳이 있어 또는 마을 전체가 소나무로 우거져 '솔고지'라 부르다가 송고로 이름 지어졌다. 주민들은 방풍과 낭장망 멸치로 삶터를 지켜간다. 바다 건너 대두라도 봉통 마을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머지않아 다리로 연결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천마을은 물이 맑고 깊은 우물이 있어 '여천기미'라 불린다. 돌산 신기항, 여수항에서 금오도로 향하는 배들이 상시 드나드는 항이다. 마을이 비탈에 형성되어 있어 농사에는 열악한 형편이라 방문객을 위한 식당, 숙박과 감성돔 낚시터로 유명해서 수시로 드나드는 방문객이 많다.



▲ 소유마을 앞의 물목섬 수향도

대유와 소유마을은 버들개 또는 유포마을로 불린다. 산줄기가 바닷가로 길게 뻗어나가 있어 '버들개'라고 했다고 한다. 버든이 버들로 변해 '버들 유'자를 쓴다. 조선시대 사슴목장에 관련된 지명들이 남아 있다. 마을 북서쪽 '사냥막터'는 금오도가 봉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관청에서 파견되었던 포수들이 기거하면서 사슴몰이를 하던 곳 이었다. '된목' 또는 '쫓지막터'는 대유마을 남서쪽 골짜기로 사슴을 사냥하면서 몰이꾼들이 거칠게 몰아붙였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금오도

서병수 돌산군수
(1899년)

금오도 비렁길의
인생샷성지인 미역널방코스

산은 연꽃같이 물위에 떠있고 별은 하늘에 빛나고 있으며
멀리 가까이 서로 끼어 앉고 어울리며
서쪽으로 구슬을 끌어당기고 동쪽으로 일출이 아름답다

들어오면 깊고도 고요하며 나가면 거센 물결이 육지를 막아주고
선박이 왕래하는 요충을 거점 삼아 닻을 내리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부두를 만들어 항구를 이뤘으며
참으로 거친 땅을 구름같이 일궈서 터전을 만들었으니
참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명승이다

▲ 출처: 『여산지』, 1899년

수향도의 원래 이름은 섬목섬이다. 소유마을 앞의 물목섬이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섬의 생김새가 물을 담은 항아리처럼 생겼다고도 하고, 큰 섬인 금오도보다 사람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머리 수' 자를 써서 수향도라고도 한다.

금오도 남동쪽에 자리잡은 심장리는 심포, 미포, 장지, 소우실포 마을이 있다.

심포마을은 포구가 깊어 '깊은 개'라는 뜻이다. 금오도를 국유지에서 해제한,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조선 측 주모자인 이주희가 가장 먼저 정착한 마을이다. 마을 남쪽에 있는 산등성이 '대감산소등' 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이주희가 명당 으로 보고 부친의 묘를 이장하였는데, 이장 후 3일 만에 천둥번개로 묘위의 바위가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하는 유래가 전해진다.

미포마을은 망끼미, 망구미라 불리던 마을이다. 망산의 끝이라는 의미로 옛날 어느 지관이 우학리를 소에 비유하여 이 마을의 해안 돌출부분이 소의 꼬리에 해당된다고 하여 미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850년 경 사도에서 살던 인동 장씨 형제가 식솔을 데리고 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국립공원마을인 소우실포마을과 돌이 많은 돌고개, 막개 또는 막포, 따순기미와 일종고지 등이 마을을 일구었던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지마을은 비렁길 5코스의 종착점이자 다리로 연결된 안도와 바로 마주보고 있다. 마을 전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망산이 북풍을 막아 양지 마을이라 불렸다. 길게 펼쳐진 해안에 자갈이 좋아 진작지라고도 불렸으나 지금은 장지마을로 이름을 바꾸었다.



나라의 부름을 아직도 기다린다 황장봉산



국가에서 엄격히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막았던 곳이다. 봉산에는 왕이나 왕비의 능묘를 보호하고 태아를 싸고 있는 막과 태반을 묻기 위하여 정해진 태봉봉산(胎封封山), 황장목만을 생산하기 위한 황장봉산(黃腸封山), 밤나무재목을 생산하기 위한 울목봉산(栗木封山) 등 특수한 목적이 정해져 있어 특별히 보호하였다. 황장봉산의 황장목은 소나무의 나이가 수백년이 되어 거목이 되면 그 심재(心材)가 적갈색으로 변하며 황색의 장기(腸器)처럼 된다는 나무로 당시로서는 중시되었다.

1872년에 제작된 『전라도 순천 방답진 지도』에는 “거마도는 황장봉산이며, 산꼭대기에 오르면 동남쪽으로 일본의 대마도가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자라 오'를 써서 금오도(金鰲島)라 쓴다. 금오도는 예부터 숲이 울창해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고 하여 '거무섬'이라고 불렸다. 『청구도』나 『대동여지도』의 '거마도(巨磨島)'라는 기록도 '거무섬'을 음차한 이름으로 해석한다.

RESOURCES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금오도 땅과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해산물

장어	1월 ~ 2월
미역	3월 ~ 5월
전복	4월 ~ 5월
멸치	5월 ~ 7월
해삼	6월 ~ 8월
삼치	10월 ~ 2월
도미	11월 ~ 5월

농작물

방풍	2월 ~ 4월
호박	3월 ~ 10월
깨	4월 ~ 8월
도라지	6월 ~ 8월
고추	6월 ~ 11월
옥수수	7월 ~ 9월
콩	8월 ~ 10월

바다생물 인문학 도미(刀味, 鯛)

도미는 조선 전 연안에서 두루 생산된다. 그 생산량의 대부분은 참돔이고 붉돔, 황돔이 다름이다. 겨울철에는 근해, 기후가 온난한 3~4월에는 점차 얕은 바다나 내만(內灣)에 모여들었다가 6월경 산란을 마치면 점차 흩어져 근해의 깊은 바다로 돌아간다. 항상 어장도 이에 따라 움직이는데, 서해의 어청도와 제주도, 태랑도 및 거문도 근해는 4계절을 통해 도미가 서식한다. 이 물고기는 본래 조선인이 즐겨 먹지 않았으나 일본인이 어획하는 경우가 늘었다. 어구는 연승, 외줄낚시, 박망, 조망, 안강망 등을 이용하는데 어구별 선박 수가 약 1,300여 척에 달한다. 조선 전 연안에 걸쳐 형성된 어장에서 1년 내내 어획이 이뤄지는데, 육지도, 안도, 청산도 근해의 경우 봄·가을 무렵 연승어업이 성행한다.

『한국수산지』중에서



책으로 만나는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1980년)

하늬바람이 불면 고기가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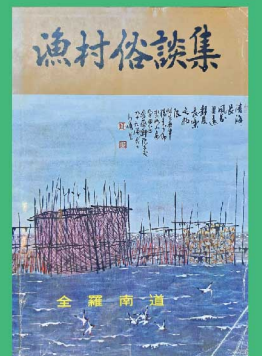
▲ 통용되는 지역: 여수, 여천 / 수집자: 여수시청 박태진

○ 과학적 타당성

- 하늬바람은 북서풍(北西風)의 옛말.
- 기상 변화는 곧 해황 변화를 일으켜 수산동·식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장에 북서풍이 분다는 것은 저기압의 북서 출현을 뜻하므로 해황의 산란기가 조성되어 어군(魚群)이 연안에 내유(來遊)하게 된다

○ 현대적 풀이

-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고기가 군집을 이루어 연안으로 몰려든다. 주로 정직성 어업에서 풍어를 이루는 때가 많으나 바람이 성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조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송호민 주무관

남면사무소



Q1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 A1 아내는 금오도가 고향이었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섬에서 지내고 계셨기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으리라 여겨 금오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어긋났던 타이밍으로 인해 몇 달을 쉬긴 했지만 금새 할 일이 생겼고, 지금은 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다만 처가댁이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귀어청년들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 아이들 얘기도 살짝 해보겠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 하던 시기에 입도했지만, 초등학교는 등교수업을 진행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잘 운영 되고 있었다. 학생수가 많지 않으니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신경 써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 내외는 물론 아이들도 학교를 사랑하고 섬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Q2 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 A2 섬이고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 민원인이 크게 화났다가 금새 풀려 '조카~, 동생~' 하며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자주 본다. 동네 주민들과의 에피소드는 소소하고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생긴다. 다만 금오도는 관광지라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의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중 하나가 동백나무 민원이다. 비렁길을 걷다 보면 동백나무를 만나는데, 칙렁쿨이 칭칭 감고 있으니 칙렁쿨을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해서 난감했던 일이 있다. 또 하나는 태풍이다. 태풍이 금오도를 통과한다는 예보를 들은 관광객이 태풍바람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며 비렁길 전망대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어 한밤중에 계도하러 비렁길로 출동했다. 호우피해가 나거나 산불이 나는 등 금오도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어디든 달려간다.

Q3 섬에서 살며 느끼는 섬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 A3 사실 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정적이다. 멀다. 불편하다. 바다위에 있다. 이정도의 느낌 이었다. 하지만 섬에서 직접 살아보니 육지의 농촌과 다를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혜택이 다양해서 놀라웠다. 섬에서 청년으로 지내보니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다는 걸 육지 청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귀어·귀농이 아닌, 마을기업의 사무장이나 학교·면사무소 기간제 일자리 등 사무업무 경험만 있다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꽤 많다. 섬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이런 일들을 하며 정착에 필요한 경험도 쌓고 더 발전적인 일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젊은사람들 모임이 있다면 참여해 보는것도 추천한다. 같은 나이대라 공감하고 공유할만한 정보가 있으니, 함께 어울리면 섬 생활이 조금 더 풍족해 질거라고 감히 말씀 드린다.

Q4 문화유산을 전공했다고 들었다.

금오도에 특별한 문화유산을 소개한다면?

- A4 금오도는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에서 민속활동이 구전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초분이다. 초분은 누군가 돌아가시면 바로 땅에 묻지 않고 관을 땅 위에 올려놓은 뒤 이엉이나 지푸라기로 덮어놔다가 2-3년이 지나면 뼈를 골라 매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초분에 대한 얘기가 꽤 흥미로운데, 뼈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뼈를 매장하는 것은 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함께 지하에 모신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한편으로는 바로 매장하는 것이 너무 박정해 조금이라도 더 지상에 두고자 하는 의미라고도 한다. 원래 금오도에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초분이 있었으나, 요근래는 가묘를 만드는 사람도 없어 초분 터만 어스름하게 남아 있다.

Q5 앞으로도 섬에서 지낼 계획인지,

섬에서 꾸는 꿈 혹은 바라는 점이 있나요?

- A5 이제 자리도 잡혔고, 금오도가 육지와 연결될 예정이라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질 부분밖에 없어 섬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 사실 처음 귀어 결심을 했을때 농가카페 운영을 목표로 섬에 들어왔었다. 아내는 관광 조리를 전공해 파티시에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처가댁에서는 비파와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데, 맛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이를 이용해 금오도 농가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섬이지만 무수히 많은 자원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금오도에서의 생활이 행복하다.



김성일 이장 금오도 송고마을

Q1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A1 금오도 송고에서 나고 자라 학창시절은 여수 시내에서 보내고, 섬으로 다시 들어왔다.
고향에 오니 확실히 좋다. 2009년부터 이장을 시작해 지금은 어촌계장직을 함께 맡고 있다. 뜬해졌던 마을 당제도 다시 재건시켜 신문에 소식도 실렸다.
지금도 여수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으로 굶도 치고, 풍물놀이도 하며 당제를 이어가고 있다. 섬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Q2 송고마을은 특히 어른을 잘 모시는 마을로 소문났다. 마을기금을 만들었다는데?

A2 섬과 시골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송고마을 역시 청년들은 줄어가고 어르신들은 많다. 앞서 말했듯 2009년부터 이장일을 하다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밥 잘 챙겨먹고 건강하게 지내주신다면 더 걱정할 것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을 청년들과 향우회 모두의 마음을 모아 “솔고지팔공복지재단”을 만들었다.
솔고지는 송고마을의 옛 이름이고, 팔공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인 숫자다. 작년부터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올해 초부터 분기당 쌀 한가마니씩 어르신들께 드리고 있다. 아직 마중물이라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올해는 금오도가 섬특성화 사업도 선정됐으니 소득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더욱 넉넉해지리라 믿고 있다. 기금이 어느정도 쌓이면 차츰 혜택 받는 연령대도 낮출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 그리고 송고마을의 행복이다.



Q3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국제청년섬워크캠프가 2년째 금오도에서 진행됐는데, 마을 분위기는 어떨까요?

A3 리사무소 앞에 걸린 현수막 봤는지. 우리 마을의 마음이다. 2년째 와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여러나라 청년들 20여명이 와주니, 조용했던 마을에 활기가 가득하다. 특히 해안정화활동, 마을 벽화그리기를 통해 깔끔해진 마을 구석구석이 눈에 확 들어온다. 작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 손톱 매니큐어 발라주고, 안마해주고, 칼까지 갈아주면서 온 마을을 다녔더니 어르신들 노인당에 모이면 그 얘기밖에 안 하셨다. 정말 즐거워하셨다. 올해는 마을 전체를 위해 사랑이 담긴 문패를 집집마다 달았다. 춘자 엄니댁, 무자 엄니댁, 판석형님댁. 글씨 한자 한자 손으로 적고 예쁘게 꾸며 달았더니 집 입구부터 반짝거린다. 퇴약별에 일하다 쉴때는 노인당에 모여서 할머니들과 손잡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어찌나 예뻐던지... 국제청년섬워크캠프 친구들이 금오도에, 송고마을에 와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Q4 금오도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A4 우리 금오도를 살짝 자랑해보자면 첫 번째는 비렁길이다. 비렁은 여수사람들이 벼랑을 부르는 말이다. 비렁길을 처음 오는 분들은 가볍게 1코스 정도를 추천한다. 3코스와 4코스 출렁다리도 있지만, 금오도는 생각보다 넓은 섬이기 때문에 체력판단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멸치다. 금오도는 멸치가 진짜 엄청 좋다. 멸치가 잡히는 걸 보면 싱싱하고 씨알 굵고 이것이 뒤폐리가 멸치가 할 정도가 될 때도 있다. 물이 깊으니 멸치들이 운동도 많이 해 살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방풍은 너무 유명하다. 멸치 금어기에는 방풍을 삶아 데쳐서 판매한다. 우리 금오도 식당 가면 알겠지만, 방풍으로 만든 반찬이 기본 한가지씩은 나온다. 방풍으로 만든 막걸리까지 생산되니 꼭 맛보셔야 된다.

Q5 금오도가 앞으로 어떤 섬이 되었으면 하는가?

A5 섬을 사랑한다. 우리 섬에서 계속 살고 싶다. 다만 행정에 바라는 부분이 조금 있다. 금오도는 관광지로 정평 나 있는 반면 소비할 거리가 없다. 비렁길이 아름다운 금오도는 겨울이 되면 감성돔 낚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설령 알린다고 한들, 추가로 이용할 만한 시설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다. 관광객 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자원들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금오도가 이번엔 선정된 섬 특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활력 사업 등 섬 관련 사업을 진행 할 때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줬으면 한다.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한 섬이 됐으면 좋겠다.

TRAVEL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여수시 남면 금오도 투어 가이드

금오도 기본 현황(2023. 12. 31. 기준)

가구·인구	877가구 · 1,360명
면적·해안선 길이	28.18㎢ · 59.96km
주요 관공서	면사무소, 농협, 육·해경 파출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119 지역대, 우체국, 여남초·중·고등학교

금오도 여객선운항정보

여수 출발 금오고속페리호

항차	여수 ↔ 금오도(여천, 유승, 우학) ↔ 안도 ↔ 연도			
	여수	여천(금오도)	유승(금오도)	우학(금오도)
1	06:20 (하 06:20)	07:15 (하 07:15)	-	07:30 (하 07:30)
	10:05 (하 10:05)	09:00 (하 09:00)	08:50 (하 08:50)	08:40 (하 08:40)
2	14:00 (하 14:30)	14:55 (하 15:25)	15:05 (하 15:45)	15:15 (하 15:55)
	18:00 (하 18:30)	17:00 (하 17:20)	-	16:25 (하 17:00)

-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 문의 : (주)한림해운 : 061-666-8092
- 운임 : 성인 1인 12,300~15,600원)
- * 차량 선적시 매표 먼저 진행 (승용기준 33,000원)
- * 동계운항시간표 : 9. 15. ~ 4. 14 * 하계운항시간표 : 4. 15. ~ 9. 14.

백야도 출발 한려페리7호

항 차		백야 ↔ 금오도(함구미, 직포)				
		1	2	3	4	5
평일	백야	07:30	10:00	13:20	15:50	-
	함구미(금오도)	08:30	12:25	14:45	16:35	-
주말	백야	07:30	09:10	11:00	13:20	15:50
	직포	-	-	12:05	-	-
	함구미(금오도)	08:10	10:00	12:25	14:45	16:35

- 백야도 선착장 : 여수시 화정면 백야해안길 73
- 문의 : (주)신아해운 : 061-665-6565
- 운임 : 성인 1인 7,500~11,000원)
- * 차량 선적시 매표 먼저 진행 (승용기준 15,000~17,000원)

돌산 신기항 출발 한림페리9호

항 차	돌산 신기항 ↔ 금오도(여천)								
	1	2	3	4	5	6	7	8	9
돌산 신기항	07:45 (하 07:45)	09:10 (하 09:10)	10:30 (하 10:30)	12:00 (하 12:00)	14:00 (하 14:30)	15:50 (하 16:00)	17:00 (하 18:00)	18:30 (하 19:30)	19:30 (하 20:30)
여천(금오도)	08:20 (하 08:20)	09:40 (하 09:40)	11:00 (하 11:00)	13:00 (하 13:00)	14:30 (하 15:00)	16:20 (하 16:30)	17:30 (하 18:30)	19:00 (하 20:00)	20:00 (하 21:00)

- 돌산 신기항 : 여수시 돌산을 신기길 90
- 문의 : (주)한림해운 : 061-666-8092
- 운임 : 신기항 → 금오도(여천) (성인 1인 6,100원) * 차량 선적시 매표 먼저 진행 (승용기준 13,000원)
- * 동계운항시간표 : 9. 15. ~ 4. 14 * 하계운항시간표 : 4. 15. ~ 9. 14.

금오도 숙박·식당 (여수시 남면)

*제공처: 여수시청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금오도 바다정원펜션	금오로 166	010-3832-2602
금오도바람에언덕	유송리 449-7	010-2247-0146
솔레이유	여천금이길 55	010-3577-1393
기쁨조이펜션	유송로 213	010-3636-4272
추억애바다펜션	유송로 262	010-7645-2838
금오도휴식처펜션	유송로 96	061-664-4799
금오도 시공간펜션	솔고지길 105	010-4450-2066
비렁길굴등펜션	금오서부로 435-248	010-3003-4921
한영민박(식당)	금오서부로 448	010-8623-9231
금오아일랜드펜션	우두로 183	010-5809-6236
초원의집민박	우두로 220	010-2272-5729
만남펜션	우두로 254	010-2272-4758
친절민박	직포길 20	010-7771-8853
학동민박	학동해안길 18	010-5411-8239
서울민박	학동해안길 32-38	010-3813-7638
코지민박	우두로 72	010-4906-2664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현주네민박	심포안길 30	010-4137-1515
새벽별펜션	심포안길 65-5	010-8648-7553
양지뜰펜션	지풍개길 30	010-9087-0488
씨니아일랜드펜션(카페)	금오로 1139	010-2942-1640
포시즌펜션	금오로 1339-45	0507-1304-2705
금오도바다애펜션	심장길 17-1	010-3649-2045
돔을별펜션(식당)	장지해안길 25	010-2089-9632
다도해힐링펜션	장지해안길 33	010-2244-5606
진작지민박	장지해안길 49	061-665-9631
해수펜션	장지해안길 69	010-6444-8240
여남민박(식당)	금오로 850	010-6757-2993
상록수민박(식당)	우학리 652-17	010-6260-9506
오케이민박	내외진길 9	010-3620-9549
금오도별밤지기펜션	내외진안길 19	010-7176-0368
금오도황토민박	못동가는길 125	010-4121-5981
우실바다펜션	우실해안길 23-2	0507-1349-5047



비령길 코스 안내

1코스

- 함구미→미역널방→송광사절터→신선대→두포
- 거리 5.0km / 2시간 소요

▶ 미역널방(1코스)

함구미에서 오솔길을 따라 30여분 건다보면 발끝으로 내려다보는 미역널방의 비경이 숨이 막힐 정도로 웅장하다. 보조국사 지눌스님 전설이 살아있는 송광사 절터를 지나면 섬 지역의 독특한 장례풍습을 엿볼 수 있는 초분과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살았다"라는 전설이 전해오는 신선대가 있다. 특히 1코스는 숲속에서 자라는 다양한 숲 속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생을 접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라고도 불린다.

2코스

- 두포→굴등전망대→촛대바위→직포
- 거리 3.5km / 1시간 30분 소요

▶ 굴등전망대(2코스)

처음으로 사람이 들어와 살아서 첫개 또는 초포라 불리는 두포마을에서 2코스가 시작된다. 바다전망이 일품인 굴등전망대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던 촛대바위가 인상적이다.

3코스

- 직포→갈바람통전망대→매봉전망대→비령다리→학동
- 거리 3.5km / 2시간 소요

▶ 매봉전망대(3코스)

300년 넘는 해안 노송이 인상적인 직포에서 시작되는 3코스는 붉은 동백숲과 굵이굵이 벼랑을 에워싸는 천연 목재길로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해안단구를 따라 이어지는 기괴암석과 에메랄드빛 해안길이 비령길의 진수를 보여주며 비령다리의 아찔함이 재미를 더하는 코스이다.

4코스

- 학동→사다리통전망대→온금동전망대→심포
- 거리 3.2km / 1시간 30분 소요

▶ 사다리통전망대(4코스)

비령길코스 중에서 가장 짧은 코스로 등산이 부담스러운 탐방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으며 시간에 쫓기는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이다. 온금동에서 심포까지 이어지는 해안길은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4코스

- 심포→막개전망대→숲구지전망대→장지
- 거리 3.3km / 1시간 30분 소요

▶ 망산봉수대에서 바라본 풍경(5코스)

작아지른 절벽에 뿌려진 시루떡 모양의 납작한 돌들이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아찔함을 선보이는 코스로 장지마을에서 가까워지면 안도가 한눈에 들어와 그림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이용자 안전수칙

- 1 사전에 코스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기
- 2 여성 등 1인 탐방객은 다른 탐방객들과 함께 걷기
- 3 길 탐방은 여름철 오후 6시, 겨울철 오후 5시 까지 마치기
- 4 인적이 드문 곳은 나홀로 탐방이나 출입을 자제하기
- 5 비상연락처(남면사무소, 파출소) 꼭 가지고 다니기
- 6 수시로 자기 위치와 안전여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기

금오도 등산로 Tip

- 매봉산등산로** - 함구미(유송리)~검바위(우학리)
- 거리 11.88km / 4시간 30분 소요
- 망산등산로** - 심포(심장리)~장지(심장리)
- 거리 3.9km / 1시간 30분 소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금오도 비렁길

함구미 선착장에서 장지까지 이어지는 18.5km의 금오도 비렁길은 총 5개의 코스로 나뉘져 있다. 비렁을 뜻하는 여수말인 '비렁'에서 묻어나듯 전 구간 모두 깎아지른 해안을 따라가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가파르지 않고 평탄하다.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보며 비렁 위를 걷는 금오도 비렁길은 국내 최고의 섬길이다. 걷는 내내 청옥 빛의 바다와 기암 괴석으로 인해 숨이 막힌다.

찾아가는 길

남면 유송리 함구미마을(1코스 기준)

직포 해변

금오도 서쪽 직포마을에 위치한 아담한 해변이다. 자갈밭과 모래사장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해안선을 따라 등천에는 수령 100년이 넘는 늙은 소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어 바닷바람에 솔향을 실어 보낸다. 발을 담그면 부드러운 모래가 소복히 밟히고, 바닥이 비쳐 보일 정도로 깨끗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꽤 많이 찾아 온다. 하지만 해수욕장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찾아가는 길

남면 두모리 직포마을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관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관은 대한예수교 장로 교회로, 금오도 남면 우학리에 자리한 명소이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경찰서에 감금되어 옥고를 치르다 병고로 출소한 후 1942년 6월 20일 우학리교회 사택에서 소천한 이기풍 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명소로 2010년 순교기념관이 완공됐다. 부대 시설로는 주민이나 여행객이 쉴 수 있는 장미 공원이 있다. 금오도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이곳 에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등 지역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현재 기념관에는 이기풍 목사가 쓴 당회록과 더불어 디오라마로 표현한 사역 모습, 시인 용혜원이 쓴 추모시(詩) 등이 전시되어 있다. 여수 지역의 기독교 역사 문화 명소인 애양원, 손양원 목사 기념관,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관을 연계한 기독교 순례 여행을 계획해도 좋겠다.

찾아가는 길

남면 우실안길 6



안도대교

안도대교는 금오도와 안도를 잇는 교량으로 2005년 7월 공사를 시작한 후 5년만인 2010년 완공되었다. 지방도 863호선에 속하는 도로로, 교량의 길이는 360m, 너비 14.5m 규모다. 다도해 주변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건설하기 위해 다른 교량보다 주탑 높이를 낮추어 시공했다. 차량을 위한 도로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관광객이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보행교가 함께 만들어져 있다. 교량을 따라 걸으며 금오도 해안 마을과 안도,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금오열도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즐거움이 함께한다.

찾아가는 길

남면 심장리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특집 1] 인터뷰

금오도 비령길 탄생 이야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

‘금오도 비령길’은

전국적 섬길 명소가 되었다.

탐방로 조성을 최초로 제안하셨다고?

과거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다녔던 길이었다.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자 마을 간 교류·소통을 위한 통로로 활용했다. 비령길 1코스에는 미역널방이나 수달피 전망대, 송광사 터가 주요 명소로 손꼽히는데, 단절된 구간이 많았다. 길이란 게 하나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 좀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기획했다. 2012년 무렵 ‘섬길잇기’를 하며 조성됐다. 비령길 1, 2코스 조성 사업에 직접 관여했는데 일부 구간에 설치한 데크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외에 크게 예산 들어갈 일이 많지 않았다. 들인 돈에 비해 큰 효과를 봤으니 얼마나 좋은가?



탐방로 이름이 독특해서 더 사랑받는 섬길이 된 것 같다.

비령길이란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처럼 처음에는 ‘둘레길’로 이름 붙이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남면을 사랑하는 청년 모임(남사모)’ 회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벼랑 끝에 있으니 비령길이다.”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외부인들에게는 낯선 용어에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며 설왕설래가 많았다. 섬 고유의 지역말을 궁금하게 하자. 비령길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면 주민들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낯선 이들 간에 갈등이나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비령길은 코스별로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금오도는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사계절 다른 매력이 있다. 여름이 오기 전이면 희귀한 난초가 꽃 피우는 모습이 장관이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이면 구절초에서부터 쑥부쟁이, 해고 등이 멋을 낸다. 특히 3코스에는 서로 다른 기후권이 경계 지어 형성되는데, 온대성에서 난대성로 바뀌는 지점이 있다. 온대성 수종인 사스레피나무가 난대성 기후가 분포하는 구역에서 ‘우목사스레피나무’로 바뀌고, 꽃과 열매는 같은데 앞에서 다른 점이 발견된다. 난대성 기후권에 접어들면 잎이 ‘우목우목’하게 생기는데, 주로 남면 아래쪽에 자리한 안도, 연도, 거문도, 초도 등지가 이에 속한다.

금오도의 역사는 비령길 전과 후로 나뉜다고 회자 된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남녘의 따뜻한 섬 탐방로는 수시로 걷기 여행자를 불러 모았다. 특히 비령길이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으면서 명물로 급부상한 게 있는데, 바로 금오도를 비롯한 남면의 특산물 방풍이다. 본래 방풍은 채소가 아니라 약초였다. 예전에 섬 주민들이 ‘황금’과 ‘시호’, ‘방풍’ 등 여러 작물을 재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수익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다른 작물을 키우려고 파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비령길이 탄생했다. 애물단지처럼 여겨졌던 작물이 섬길 브랜드에 힘입어 로컬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그 덕분에 즐겨 찾지 않는 약초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나물로 보편화되기도 해 큰 인기를 누렸다.

금오도는 어떻게 여행하는 게 좋을까?

함구미마을에서 시작해 장지마을까지 빼어난 해안경관과 다양한 식생, 풍부한 이야기와 역사가 길 위에 있다. 다채로운 풍경을 지닌 마을과 섬 사람들도 표정이 좋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소통의 옛길이 외지인의 치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로드다. 백 명이 한 번 오는 섬보다 한 명이 열 번 찾아오는 섬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특집 2] 제5회 국제청년섬워크캠프 여수 금오도 비령길 탐방



출 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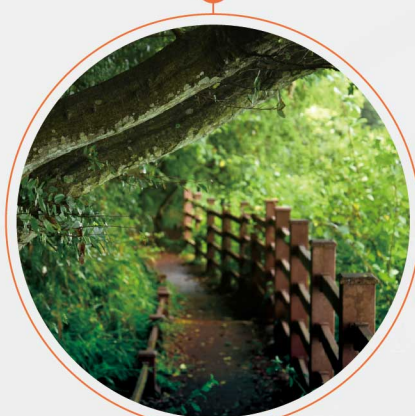
최고의 비령길 길라잡이
김병호, 조미선 선생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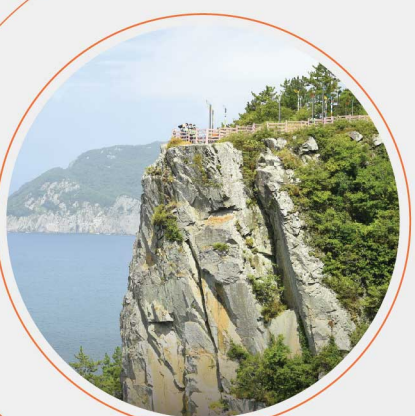
1코스 함구마을 출발

4



비령을 따라 이어진 안전테크
(일부 위험구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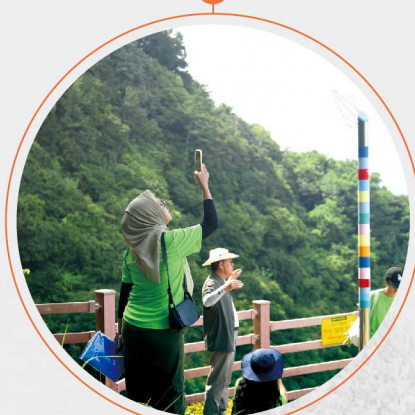
비령길의 백미 미역널방

6



미역널방

7



미역널방

3



다양한 식생관찰로

8



송광사 절터

9



해안단구 지형

도 착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섬코디네이터'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01

섬코디네이터를 더 널리 더 많이 알리기 위한 "섬코디네이터 홍보콘텐츠 제작 기획 회의"가 지난 9월 4일 열렸다. 올해는 특히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통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열띤 회의가 진행됐다. 인물 집중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수 낭도·손죽도, 고흥 연흥도, 진도 관매도, 신안 선도 섬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캐릭터 별 핵심키워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 열정거북 협동조합, 선도 주현주님과 함께 콘텐츠 제작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메인 영상 및 숏츠 레퍼런스, 스토리보드를 공유하며 보다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약 3개월간 섬코디네이터의 하루와 경제활동을 따듯 하게 담아내고, 또한 섬마다 발생한 이벤트나 특산품들도 함께 촬영해 추후 활용을 위한 밑거름을 다질 예정이다. 12월 공개될 섬코디네이터 콘텐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본다.



여수 송도에서 섬코디네이터를 외치다

02

가고 싶은 섬 여수 송도에서 섬코디네이터 현장방문 교육이 진행됐다. 2019년부터 섬코디네이터 사업을 함께 지원해준 다문커뮤니케이션 박효준 대표의 강의로 시작된 송도 교육에서는, 섬코디네이터의 의의·역할과 더불어 요즘 관광트렌드,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상품 홍보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 신청자 이외에 약 30여명의 마을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송도 마을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송도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특산품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관광 자원 분석과 더불어 해설서 제작 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송도를 사랑하는 주민과 섬코디네이터의 마음이 지속되길 바라본다.



여수 연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가고 싶은 섬! 뜨겁게 시작된 주민대학

03

9월 11일,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가고싶은 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들이 모여 주민 대학을 진행했다. "공동체와 연도문화중심 프로젝트"를 주제로, 마을공간을 꾸밀때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 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단순한 강의 형태를 넘어 실제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가고 싶은 섬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2차로 진행되는 주민대학에는 추진위원 뿐만 아니라 연도의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학을 진행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거문도와 백도에서 해양영토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순례 여행!"

04

전라남도는 9월 10일부터 이틀간 여수 거문도와 백도 일원에서 일반인과 학생 등 100명이 참여하는 국토 외곽 먼섬 해양영토 순례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대학교 실습선 '새동백호'에 승선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영해기점 섬인 여수 거문도와 백도 해상에서 펼쳤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섬섬여수 사랑 퀴즈, 해양영토 특강, 영해기점 퍼포먼스, 섬섬여수 사랑 음악회, 전문가 토론, 거문도 일출 이벤트, 거문도 녹산등대 투어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거문도가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를 정하는 기준점으로서 중요한 지리적위치 뿐만 아니라 역사·생태·문화·관광적 가치가 큰 섬이라는 점을 알리며 섬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신연 주임님 환영합니다

05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가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김신연 주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신연님

안녕하세요. 10월부터 새롭게 섬발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섬린이 김신연입니다. 도시에서 치열하게 생활하던 중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의 순간 신비로운 섬의 매력에 빠져 섬발전지원센터에 지원하였고 운명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섬을 소중히 보존하고, 섬 주민분들의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섬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무럭무럭 성장하는 섬린이의 성장 모습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